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의 'K-트로트' 선포식



매회 최고 기록 경신 인기몰이

새 예능 <트로트신이 떴다>(연출: 최소형)가 3주 연속 동시간대 2049 시청률, 시청자 수, 가구시청률 1위를 석권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로트신이 떴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신들이 트로트 세계화에 도전하는 신개념 트로트 예능이다. 남진, 김연자, 주현미, 설운도, 진성, 장윤정 등 한자리에 보기 어려운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가 낯선 베트남에서 버스킹을 하며 트로트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3월 4일(수) 밤 10시에 첫 선을 보인 <트로트신이 떴다>는 1, 2부 2049 시청률 2.1%, 3.6%(이하 닐슨코리아/수도권 기준)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시청자 수는 동시간대 유일하게 백만(104만/165만)을 넘었고 가구시청률(10.2%/16.3%) 역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20.2%까지 치솟았다.

3월 11일(수) 방송된 2회는 더욱 상승한 수치로 동시간대 2049 시청률, 시청자 수, 가구시청률 1위의 3관왕을 차지했다. 동시간대뿐만 아니라 시청자 수와 가구시청률은 수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49 시청률은 <골목식당>에 이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기세를 이어 3월 18일(수) 방송된 3회는 2049 시청률 2.9%, 3.9%, 시청자 수 131만, 169만, 가구시청률 12.6%, 16.4%로 시청자 수와 시청률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방송을 시작한 이후 가구와 시청자 수 모두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현재 주간 전체 예능 2위에 안착,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트로트신이 떴다>는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의 해외 버스킹이라는 신선한 기획과 'K-트로트 세계화' 가치를 내건 중견가수들의 초심으로 돌아간 도전 과정이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남진, 설운도의 입담에 예능 색별로 떠오른 진성, 소녀 감성의 김연자, 주현미, 분위기 메이커 장윤정의 무대 밖 모습이 재미와 웃음을 안겨 준다. 거기에 성실한 일꾼 정용화, 재치 넘치는 봄이 앞뒤로 밀고 끌며 분위기를 떠받친다.

경력의 합이 무려 222년인 가수들이 무대에 긴장하고 서로 뜨거운 감정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도 따라 콧날이 시큰해지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이 조합 실화냐?", "일주일을 이 프로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은 너무 짧다", "행사 뛰면 한 분당 삼천은 받을 텐데 대체 얼마짜리 공연을 집에서 보고 있는 거냐?", "진성 BTS 티저 보다가 웃겨서 쓰러졌다", "트로트 듣고 눈물 흘리기는 처음" 등의 평을 올리며 뜨겁게 호응했다.

원대한 취지에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트로트신이 떴다>의 순항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선거방송의 끝판왕 - SBS <2020 국민의 선택>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2049 공약 준비 마쳤다

SBS는 역대 선거마다 획기적인 시도들로 선거방송의 새 역사를 써왔다. '믿고 보는 선거방송'으로 자리 잡은 SBS는 4월 15일(수) 치러질 총선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 명성을 재현한다.

특히 이번 <2020 국민의 선택>은 민심에 주목, 유권자들이 제시하는 길의 향방을 '오늘, 우리 손끝으로'라는 슬로건에 담았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분석, 여전히 막강한 그래픽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분석이 돋보이는 PT(프레젠테이션)는 SBS 선거방송의 꽃이다. 권역별 판세와 관심지역 동별 분석, 선거 막판 변수와 지지율 추이까지.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SBS의 당선예측분석시스템 '유·확·당' (유력/확실/당선)은 출구조사 의석수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더 정확한 당선 확률을 선보인다.

SBS 선거방송에 특히 젊은 층이 열광했던 이유는 현재의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 풍성한 재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2020 국민의 선택>은 SBS의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그래픽과 재치 넘치는 풍자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아울러 감성적인 그래픽을 통해 정치·사회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이 선택되는 순간, <2020 국민의 선택>이 전할 재치 있고도 묵직한 메시지가 주목된다.

투표가 미술과 만났다 'VOTE KOREA 2020' 전시회

한편, SB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VOTE KOREA 2020'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7명의 작가가 '투표'를 주제로 그려낸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투표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3월 29일(일)부터 4월

15일(수)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개관된다.

중독성 있는 선거송 'Vote with me' 공개

힙합듀오 마이티마우스(Mighty Mouth)와 김수민 아나운서는 선거 캠페인송 'Vote with me'를 함께 부른다. 마이티마우스의 'Love Issue'를 개사한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마이티마우스 특유의 경쾌하고 통통 튀는 랩핑이 인상적이다.

"희망으로 꼭! 이번엔 꼭!"이라는 가사에는 더 나은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공약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토론도 챙겨본 뒤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해야 한다는 선거 정보도 담았다. 국회 앞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와 메이킹 필름은 SBS 선거방송 <2020 국민의 선택> 방송 전 TV 스팟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SBS NEWS 유튜브 계정과 @sbsvote2020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에도 업로드된다.



<정글의 법칙 in 팔라완>

양세형부터 이영표까지 역대급 라인업



병만족의 46번째 생존 <정글의 법칙 바타&코론>이 오는 3월 28일(토) 첫 방송된다.

이번 병만족의 생존 무대인 팔라완은 필리핀 남서부에 있는 다도 지역으로, 높게 뻗은 산맥과 울창한 열대우림을 자랑하는 '필리핀의 마지막 보석'이다. 이곳은 필리핀에서 원

고 있는 개그맨 이상준,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 티아라 출신 배우 함은정, 통통 튀는 매력으로 병만족의 에너지가 될 우주소년 다영,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세 가수 진해성이 병만 족장, 노우진과 함께 팔라완의 원시부족 '바타족'의 생존 방식과 지혜를 배워가며 함께

생존할 예정이다. 역대 최다 개그맨이 출연한 전반전은 개그맨들과 족장과의 개그 케미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이어지는 후반전 <정글의 법칙 in 코론> 편에서는 예능에서 보기 힘든 축구 영웅 이영표,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귀호강 발라드이자 예능 섯별 워너원 출신의 김재환, 러블리즈의 비주얼 담당 예인, 2m가 넘는 남사벽 피지컬을 자랑하는 '배구계의 강동원' 김요한, 방송에 나왔다 하면 연일 실감을 장악하는 예능 대세 배우 송진우, 섯시한 매력 뒤에 솔직하고 털털한 반전 매력을 가진 배우 이채영이 아름다운 코론섬에서 극한 생존에 도전한다. 특히 최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다 정화를 위해 필리핀 현지 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한다.

'필리핀 최후의 개척지' 팔라완에서 펼쳐지는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생존기 <정글의 법칙 바타&코론> 편은 3월 28일 토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4.15 총선 특집 랜선 소망 챌린지 < 짹! 우리 사이로 >

4월 총선을 맞이해 랜선 소망 챌린지, < 짹! 우리 사이로[4.15]>가 3월 25일(수) 본격 시작됐다. 각 분야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시작해 일반 유권자까지 우리 사회에 바라는 소망과 변화를 영상으로 담아 널리 퍼뜨리는 챌린지다.

SBS 뉴미디어뉴스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온라인 비대면 접촉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대구 지역 의사와 파견 간호사도 챌린지에 참여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소망을 영상에 담아 감동을 선사했다. 또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투표 독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투표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 짹! 우리 사이로[4.15]> 챌린지에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각 분야 대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한다. 구독자 수 상위 1% 백종원, 키즈 크리

에이터 1인자 헤이지니, 대표 크리에이터 커플 대도서관과 움땡, ‘초통령’도티, 실버 크리에이터 선두주자 밀라노나, 게임 크리에이터 김재원 등이 그들이다. 이 외에도 소련여자, 오예커플, 약쿠르트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 짹! 우리 사이로[4.15]>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선거를 통해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을 영상에 담아 sbsjebo@gmail.com 메일로 보내거나 자신의 SNS 계정에 #SBS뉴스 #짹자우리415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한편, < 짹! 우리 사이로[4.15]>에 등장하는 캐릭터 ‘짹자’는 위의 해를 기념해 탄생한 토종 다람쥐로, 챌린지 곳곳에 등장해 생동감과 귀여움을 더한다. 그리고 유명 웹툰 ‘아빠는 N살’ 작가와 협업해 웹툰으로 제작되어 SBS뉴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짹! 우리 사이로[4.15]

참여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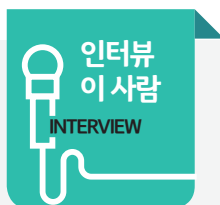


① 소망을 담은 영상 촬영

② 영상에서 ‘짹! 우리 사이로[4.15]’를 말하고 릴레이 2명 지목

③ SNS에 #SBS뉴스 #짹자우리415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

※ sbsjebo@gmail.com 에도 영상 또는 링크 전달.



익숙하지만 뭐 하나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재미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을 것

- 광승영 예능4CP(<트롯신이 떴다> 기획)

내로라하는 트롯신들이 다 모였다. 섭외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섭외를 시작했는데, 출연자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꼭 이분들이어야만 해서 더욱 긴장했다. 워낙 바쁜 분들이라 약속 잡기도 힘들었고, 트로트 붐이 불기 시작했던 때라 여기저기 섭외에 시달려서 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약속도 없이 무작정 디너쇼 현장으로, 벌고 행사장으로, 때로는 주례를 보는 결혼식장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한 분당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만났다. 결정된 이후에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다. 다들 프로그램 콘셉트를 좋아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다.

예능4CP하면서 연출도 같이 하고 있다.

작년 9월 CP가 되기 전부터 기획했던 프로라 당연히 연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CP로 현장에서 후배 PD와 협업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현재 예능본부 인력 상황이 어려워 특히 파일럿 할 때 어려움이 많다. CP 연출 프로그램이라고 예외는 없다. 메인 연출 최소형 PD와 나, 딱 두 명인 초슬림 팀으로 시작했었다. 너무 많은 일을 둘이서 하다 보니 빠진 게 없나, 혹여나 프로그램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베트남 촬영 때는 새벽 3시 이전에 숙소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촬영 4일째 되는 날, 두 번째 공연 촬영을 한창 하고 있는데, 문득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프로그램 콘셉트는 어떻게 잡았나?

처음 출발은 ‘제대로 된 트로트를 들려주자’였다. 노래는 어떻게 편곡하고, 무대장치는 얼마나 멋있게 하고... 자꾸 가수들을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가에만 생각이 갔다. 그런

데 이렇게 하면 <가요무대>와 뭐가 다르겠는가? 답이 안 나왔다. 어느 날 <가요무대> 경찰의 날 특집을 보는데, 김연자 씨의 ‘아모르파티’에 젊은 경찰관들이 열광하는 그림을 봤다. 굉장히 신선했다.

‘부르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 그것도 트로트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외국 관객들로.

<미우새> 때도 관찰 예능은 많았지만 출연자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춰서 히트한 바 있는데?

솔직히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획기적인 기획을 할 자신은 없다. 익숙하지만 뭐 하나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확실한 재미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을 것. 그게 <미우새>에서는 엄마의 시각이고, <트롯>에서는 바뀐 객석이다.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언제 들었나?

첫 공연인 우체국 앞 버스킹이 끝나고서다. 사실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만 해도 공연을 못 하는 줄 알았다. 가장 중요한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하는 거다. 원인불명, 1초가 1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성에는 안 차지만 겨우 복구해서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발전차가 나갔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모든 전원을 내리고 잠시 시간을 갖고 재부팅해서 최소한의 조명만 켜 채로 다시 해 보자, 거짓말처럼 전원이 들어왔다. 또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스태프들이 한몸처럼 움직였다.

같이 맘 졸였던 기라성 같은 출연자들이 이 초라한 버스킹 무대가 뭐라고, 무대가 끝난 후 서로 껴안고 울더라. 이때 ‘아, 될 수 있겠다’라는 벅참,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잘 편집하지?’하는 부담감이 함께 몰려왔다.



반주며 음향이 훌륭해서 버스킹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에 K-트로트를 알리는 거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2~30명의 관객에게 들려주고 트로트를 알리고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외국 관객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신인이 아닌 대가들의 진짜 트로트를 들려주고 싶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현장에서 최소의 장비만 써야 해서, 오히려 고퀄의 음악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했다. 혹여나 출연자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웠다. 결과적으로 종편실 사우들의 노력으로 좋은 음질의 방송이 나갈 수 있었다. 세 가지 버전으로 튜닝 해 갖고 오셔서, 마지막 믹싱 때 이 세 가지를 다 해봐서 가장 좋은 걸로 나가자고 해주셨던 종편실, 그리고 음향 담당 사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원들에게 한마디

최고의 편성 시간을 주기 위해 고심한 콘텐츠기획팀 사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고팀, 마케팅솔루션팀, 예능운영팀, 기술팀 등 <트롯>을 위해서 같이 달려주신 모든 사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트롯>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돌 댄스 페스티벌! SBS KPOP <댄싱 아이돌> 론칭

K팝 한류와 함께 K팝 커버댄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열풍에 힘입어 SBS K팝 유튜브 채널 '스브스케이팝'(SBS KPOP)에서는 국내외 팬들을 위한 대규모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댄싱 아이돌>을 론칭한다. <댄싱 아이돌>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선보이는 콘텐츠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60분으로 편성돼 눈길을 끈다.

<댄싱 아이돌>은 핫한 가요계 루키들이 K팝 커버댄스를 선보이는 신개념 댄스 버라이어티다. 로켓펀치부터, VERIVERY(베리베리), 엘리스, 온리원오브, 원어스, 체리블렛까지 총 6팀의 아이돌 그룹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이들은 모두 데뷔 3년 미만의 그룹들로, 지속적으로 팬덤을 키워나가고 있다. <댄싱 아이돌>은 이들이 글로벌 스타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슈퍼주니어 신동과 오마이걸 유아가 MC를 맡아 힘을 보탤다. '스브스케이팝'의 아이돌 전문 토크 버라이어티 <신동가요>를 통해 댄스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신동과 독보적인 실력으로 오마이걸의 메인 댄서 자리를 꿰찬 유아가 어떤 활약으로 보는 재미를 더할지 기대를 모은다.

이양화 PD는 “지난해 '스브스케이팝'에서 선보인 <아이돌 커버댄스 챌린지>에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댄싱 아이돌>이라는 특별 기획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게 됐다. 총 6팀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매력과 개성이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전했다.

<댄싱 아이돌>은 4월 중 '스브스케이팝' 채널과 LG U플러스 앱을 통해 동시에 오픈되며, VR 서비스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SBS와 LG U플러스는 디지털 콘텐츠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유저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SBS ENTER PLAY <빅피쉬> 이태곤, 세계 낚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

오는 4월 4일(토) SBS 유튜브 채널 'ENTER PLAY'에서는 배우 이태곤이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 낚시대회에 도전하는 이야기 <빅피쉬>(연출: 최장원)가 방송된다.

일명 '킹태곤'이라 불리는 연예계 대표 낚시꾼 이태곤은 세계 낚시대회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북마리아나제도 와후 낚시대회'이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프로 낚시꾼들이 치열하게 경합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이태곤은 뛰어난 기량과 집중력으로 멋진 승부를 펼쳤다.

그뿐만 아니라 <빅피쉬>에서는 세계 대회를 앞두고 떠난 2박 3일간의 전지훈련을 통해 진짜 낚시 이야기를 선보인다. 태국 시밀란 군도 부근에서 2박 3일간 배 위에서만 생활하며 낚시 연습에 총력을 기울였던 순간부터 촬영 중 배의 방향타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해 망망대해에서 표류했던 아찔했던 순간과 구조 과정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리얼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입이 떡 벌어지는 다양하고 화려한 장비는 물론 전문적인 낚시 기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또한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 이태곤의 반전 매력이 날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세계 무대로 진출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태곤의 낚시 이야기 <빅피쉬>는 4월 4일(토) 유튜브 'ENTER PLAY' 채널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총 7,000만 뷰 돌파! 모바일 고민 해결사 <세 마이웨이> 100회



SBS 모비딕 <세마이웨이> 100회 특집이 4월 2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세마이웨이>는 연예계 대표 '세 언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와 래퍼 치타가 사연 제보자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SBS 모비딕 대표 콘텐츠이다. 2017년 8월 론칭 이후 지금까지 누적 조회 수 7,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다.

MC 제아와 치타는 카리스마 있는 사이다 고민 해결과 위로로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 MC들이 그간 터부시해왔던 여성의 '성욕', '속궁합', '생리용품' 등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하고, 속 시원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마이웨이>는 시청자들의 개인적인 고민 상담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사회,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두루 포용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비혼주의', '투표 독려', '디지털 성범죄' 등 시대가 원하는 사연을 선정해 때론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때론 영리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뉴미디어계의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작사가 김이나, 코미디언 안영미, 가수 산다라박, 래퍼 딘딘 등 사연에 맞는 게스트를 선정해 고민 상담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점이 <세마이웨이>를 믿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다. 옥성아 PD는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가 양산되고 사라지는 콘텐츠 홍수 시대에 <세마이웨이>가 100회를 맞아 기쁘고 감사하다. 특집으로 기획한 100회에서는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와 특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모비딕 <세마이웨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세마이웨이' 채널과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페이스북, 곰TV, 네이버TV, V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